

KCCI 브리프_ESG_제37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MAY. 2024

전문가 기고

사업 역량 활용하는 ESG 전략

ESG 주요 현안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사업 역량 활용하는 ESG 전략

문병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 각 기업이 갖추고 있는 사업 역량을 ESG 활동에 녹이는 것이 반기업 정신 탈피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호감지수가 역대 가장 높은 55.9%를 기록했다. 세부적 이유를 보니 '국가경제에 기여'(55.4%)하고 '일자리 창출'(29.4%)을 한다는 답이 많았다.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은 2.8%, 준법·윤리경영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50%가 넘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호감도에서는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이 36.5%로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박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2023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1조 9100억이었다. 전년보다 22% 정도 늘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381개나 된다.

그럼에도 장시간 각인된 국민의 반기업 정서 때문인지 ESG 평가가 좋지 않다. 이는 정경유착, 탈세, 불법 비자금, 편법 상속, 근로자들과의 불편한 관계, 환경오염 등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들은 ESG의 한 축인 S(사회적 책임 경영)에 많은 돈을 투입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국민이나 정치권에 그만큼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21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이 결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기업 정서가 남아 있는 한 아무리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도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자발적 모습이 많았다. 정권이 바뀌거나 각종 비리사건에 기업 이름이 오르내릴 때면 부쩍 액수가 늘거나 활동이 잦아졌다. 이 때문에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지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상이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방향과 방법은 기업의 사업 구조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연탄 나르기와 기부금과 같은 1차원적 사회공헌을 뛰어 넘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를 통해 회사 역시 새로운 네트워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회사의 IT역량을 투입, 전 세계 스타트업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해왔다. 정부, 비정부 기구(NGO), 다른 기업들과 연계해 정보격차에 놓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비영리단체들이 MS가 만들어낸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회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성공 후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시스코(Cisco) 역시 1997년부터 170여 개국에 네트워크 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제연합(UN), NGO,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저개발 지역이나 국가의 일반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각 기업이 갖추고 있는 사업 역량을 ESG 활동에 녹이는 것이야말로 반기업 정서 탈피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위원회 신설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ESG경영의 조직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거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가속화 되는 ESG위원회 설치

최근 ESG경영이 가속화 되고 202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예정 등 대내외적으로 ESG경영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중에서 환경(E)과 사회(S)분야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배구조(G)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 동안 CSR차원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던 기업들이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여러 기업에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담당 조직이 만들어져 이사회 차원에서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글로벌 추세를 따르고 있다.

ESG위원회 설치한 유가증권 상장회사 분류 단위 : 개사, %

구분	유가증권 상장회사	ESG 위원회설치사	비중**
대기업집단*	220	139	63.18
금융지주	9	7	77.78
금융회사*	16	4	25.00
비기업집단	547	38	6.95
계	792	188	-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만 분류
 ** 대기업집단/금융회사/비기업집단 내 ESG위원회 설치사비중
 출처: 경제개혁연구소

실제로 경제개혁연구소가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792개의 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188개 회사(23.74%)가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ESG위원회 구성원들의 ESG에 대한 이해, 이사회 내 ESG 전문성 문제, 중장기적인 전략 등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SG위원회 신설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ESG경영의 조직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거나,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효율이 낮은 ESG위원회 현황

KCGS Report(21년11권10호)의 분석을 살펴보자.

유가증권 상장사 819사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전부 적용받아 엄격한 지배구조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사 55사 등 전체 874사의 20년부터 21년6월까지 이사회 활동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0사(금융업 25사, 비금융업 85사)에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내역이 파악되는 회사는 68사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874사 중 134사가 이사회 차원에서 ESG 관련 사항을 정식으로 논의하였는데,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ESG경영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134사 중 110사 이었다. 한편 110사의 27.3%에 해당하는 30사는 위원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회만 설치만 하였을 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원회 활동이 파악되는 회사 중 12사는 ESG경영을 위한 논의가 아닌 위원장 선임, 권한대행순서 결정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만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ESG위원회를 설치한 110사의 38.2%(42사)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있어서도 내부거래 승인 또는 법률상 이사회 승인이 요청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ESG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어도 무방한 내용이었으며, ESG위원회에 핵심적으로 기대되는 ESG 전략 관련 안건을 상정한 회사는 110사 중 40사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ESG 활동을 논의한 회사들의 이사회 활동을 확인한 결과, ESG활동을 논의한 28사 중 15사는 ESG 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수립하지 않고 ESG 활동을 이행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ESG위원회의 운영은 아직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SG위원회 안건 상정 현황

단위 : 안건 수(비율)

인권 종류/ 심의형태					보고인건 후속조치	
	합	결의	논의	보고	이사회 보고	이사회 결의
ESG 전략계획 수립	54 (13.0%)	22 (10.7%)	2	30 (16.4%)	4	1
ESG 활동 및 전략 점검	50 (12.0%)	9 (4.4%)	1	40 (21.9%)	5	0
주요경영사항	17 (4.1%)	0 -	8	9 (4.9%)	0	6
경영 현안 및 국내외 동향	11 (2.7%)	0 -	0	11 (6.0%)	2	0
지배구조 개선	21 (5.1%)	9 (4.4%)	4	8 (4.4%)	2	0
보상	2 (0.5%)	0 -	1	1 (0.5%)	1	0
공시	11 (2.7%)	2 (1.0%)	0	9 (4.9%)	1	1
ESG 규정 관련	11 (2.7%)	5 (2.4%)	0	6 (3.3%)	0	0
이해상충 거래	69 (16.6%)	62 (30.2%)	0	7 (3.8%)	0	0
사회공헌	21 (5.1%)	7 (3.4%)	2	12 (6.6%)	0	0
위원회 운영	63 (15.2%)	54 (26.3%)	1	8 (4.4%)	0	0
기타 이사회 필수 보고·결의사항	49 (11.8%)	19 (9.3%)	8	22 (12.0%)	2	2
기타	36 (8.7%)	16 (7.8%)	0	20 (10.9%)	0	0
총합	415 (100%)	205 (100%)	27	183 (100%)	17	10

자료 출처: KCGS

3. ESG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미래에셋생명,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SKC, 효성, 포스코, SK텔레콤, 삼성물산 등 이다. '2023 삼성물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5~2017년까지 ESG 운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영체제 구축에 집중하던 가운데 2018~2020년은 운영체제를 근간으로 중장기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행, 2021년부터 3년간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을 목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2022년 4월 내부거래위원회로 통합하였고,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며,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2/3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결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 등 실제 주요 활동을 하였다. 동사는 건설사로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각 회사가 상정한 주요 ESG이슈(ESG Materiality) 관리와 개선에 좀 더 집중한다면 향후 더욱 효율적으로 ESG경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4. 실효성 높은 ESG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언

ESG경영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보틀넥(bottle neck)은 G(지배구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E(환경)와 S(사회)를 잘해도 G(지배구조)를 잘 못하면 지속가능경영이 어려워진다. 이제는 기업이 주주가치 뿐 만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SG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ESG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 위원 선임시 E(환경), S(사회) 및 G(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위원 확보하여 의사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SG전문성이 이른바 ESG워싱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ESG위원회의 위원회 활성화

- ESG위원회 설치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관심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ESG위원회의 책임 명확화

- 의사 결정에 따른 ESG위원회의 책임도 규정하여야 한다. 책임부여는 오히려 ESG위원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주체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ESG기준원, KCGS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23.02)
- 유고은, 2021년 ESG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KCGS Report 21년11권10호)
- 정재규, ESG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과 역할 (2021CEO스코어데일리정책포럼)
- 구현화, 설립 줄 잇는 ESG위원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한국경제, 2023.08.08.)
- 삼성물산 홈페이지-[ESG]-[지배구조]

E

환경



EU 역대 모든 제품에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유럽의회 통과...韓 기업 대비 필요

그리니움 | 2024.04.26.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irculareconomy-policy-eu-parliament-pass-esg-environment-law-espr-repair-regulations/>

중국 연구팀이 매긴 국가별 ESG 성적...한국, G20 중 상위권

ESG경제 | 2024.04.2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2>

UN 제4차 플라스틱 협상, 성과없이 종료

ESG경제 | 2024.05.0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4>

중요 원자재 9가지, 기후 위험에 직면해있어...PwC 보고서

임팩트온 | 2024.05.0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51>

KSSB, ESG 공시 초안 공개...기후 외 사안은 선택 공시

한경ESG | 2024.05.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308598i>

CEO 교체 잦은 기업 그린워싱 위험 커진다

ESG경제 | 2024.05.0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9>

"ISSB, ESG 정보 택소노미 발간"

ESG경제 | 2024.05.07.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1>

ESG '친환경' 외치는 식품업계...플라스틱 얼마나 줄였나

매경헬스 | 2024.05.09.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31>

"KOTRA, 'EU 공급망실사지침' 대비 기업 사전준비 지원나서"

매경헬스 | 2024.05.09.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774>

KFC의 탄소배출량 46% 절감한 비법은?

임팩트온 | 2024.05.10.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5>

2개월여 만에 36% ↑ ...탄소배출권 상승세

한경ESG | 2024.05.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238661>

협력사 ESG 관리 핵심은 페널티 아닌 실질지원

중소기업뉴스 | 2024.03.11.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97>

[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 근로환경

임팩트온 | 2024.04.1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98>

'깨어있는 자본주의' 반감에... '다양성' 비전 없애는 대기업들

한경글로벌마켓 | 2024.04.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27536i>

현대·기아차, 협력사 복지 위해 120억 투입...상생협약 체결

전자신문 | 2024.04.25. <https://www.etnews.com/20240425000233>

조직 내 DE&I의 적...상사가 특권의식을 가진 자라면?

ESG경제 | 2024.05.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2>

신한은행, 청년·아동 후원 ESG경영 관심도 1위...KB국민·하나은행 순

조세일보 | 2024.05.13.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5/20240513516517.html>

서스틴베스트 "자산총액 상위 50개 기업 모두 이사회 내 여성이사 보유"

뉴스웨이 | 2024.04.17.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41710120518858>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통합된 변화전략 필요

법률신문 | 2024.04.22.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633>

'공시' 요구 항목에 답이 있다

더중앙 | 2024.05.02.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812>

ESG 구호만으론 불충분...투자·성과 공시 요구 커진다

한경ESG | 2024.04.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483#home>

기업 스스로 '밸류업' 하라지만 ... 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

매일경제 | 2024.05.02. <https://www.mk.co.kr/news/stock/11006096>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3.9	10월	11월	12월	'24.1	2월	3월	4월
녹색채권	257	268	276	278	279	280	278	279
사회적채권	1,371	1,394	1,440	1,463	1,474	1,502	1,531	1,526
지속가능채권	294	289	280	290	285	275	268	254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분	'23.9	10월	11월	12월	'24.1	2월	3월	4월
녹색채권	249	251	254	256	255	266	262	259
사회적채권	1,898	1,928	1,971	1,994	1,999	2,023	2,054	2,044
지속가능채권	212	207	201	203	199	186	184	177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4.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4.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37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4)

* CF100 참여 기업 수: 152개 ('24.4)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28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최종안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

제6기 대한상의 ESG 아카데미

- ESG 공시·공급망 실무심화 과정 -



2024. 6. 19 WED ~ 6. 20 THU [오전 09:30 ~ 12:30 / 오후 13:30 ~ 17:30]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지하2층)

교육비 | 대한상의 회원 660,000, 비회원 770,000("VAT 포함" 중식 및 교재 제공)

- 1일차와 2일차 동일기업 내 참석자 변경 가능

과정소개 | <제6기 '대한상의-그린에토스랩' ESG 공시/공급망 실무심화과정>

- ESG 공시와 공급망 법제화에 따른 실무 이슈 점검
- 강의수료증 발급

비환급과정

주요 교육내용

일차	세부내용	시간	강사
1일차 ----- ESG 공시핵심	글로벌 ESG 공시 핵심정리(ESRS 핵심 포함)	9:30~10:30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EFRAG 이중중대성 평가 주요 이슈, 각국의 공시제도 비교 분석	10:30~12:30	
	점심시간	12:30~13:30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사례를 통한 오류 케이스 분석	13:30~14:30	이미정 한국품질재단 팀장
	CDP 보고서 작성 개요와 주요 유의사항	14:30~15:30	김태한 한국사회책임 투자 포럼 수석
	ESG 평가관점의 공시 케이스 분석 및 시사점	15:30~16:30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2일차 ----- 공급망 실사 실무 핵심	공시기준 비교 실습 (우리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 : 조별 실습 및 네트워킹)	16:30~17:30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CSRD 최종안 분석 및 독일공급망 실사 주요 내용 분석	9:30~10:30	장윤재 법무법인 세종 박사
	온실가스 Scope 3 측정과 공급망 주요 이슈	10:30~11:30	고순현 에코엔파트너스 부사장
	공정거래법상 공급망 실사 시 유의사항	11:30~12:30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점심시간	12:30~13:30	
	공급망 실사 대응 :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사 쟁점	13:30~14:30	안동규 한국ESG데이터 원장
	공급망 실사 대응 : 유해물질, 오염물질 관리체계	14:30~15:30	소철환 캠토피아 본부장
	공급망 실사 대응 : 안전보건 관리체계	15:30~16:30	김형수 캠토피아 상무
국내 공급망 실사 사례와 현장 이슈	16:30~17:30	양해성 IBK은행 ESG 컨설팅 팀장	

신청방법 | 대한상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모바일 접수 불가)

코참넷(www.korcham.net)접속 → 행사/교육 메뉴 → 교육메뉴 → 과정명 클릭 → '신청'버튼 클릭 → 신청자 정보 입력

<https://event.korcham.net/onlineWeb/form/1710.do>

교육문의 |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 최영준 사원

T. 02-6050-3354 E. cyj@korcham.net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 장연수 사원

T. 02-6050-3352 E. jys@korcham.net

결제방법 | 일반 계좌이체

입금계좌 : 361-910022-61804 하나은행(예금주 : 주식회사 그린에토스랩)

{주의}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 계좌이체 불가/현장결제 불가

▶교육신청 마감일 : 2024. 6. 14(금) 까지

- 교육 신청은 영업일 기준 교육시작 5일 전에 마감됩니다.
- 입금은 영업일 기준 교육시작 3일 전에 마감됩니다.
- 교육 취소/환불은 교육시작 후 불가하오니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메일 또는 전화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결제문의 | 주식회사 그린에토스랩

T. 02-6205-0315 E. esg@greenethos.co.kr

유의사항 | ▶ 수강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표는 교육시작 이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시작 전까지 입금완료 하신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교육 종료 후 익일~수일 내 이메일(PDF)로 배부합니다.

★입금관련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대표 이메일 esg@greenethos.co.kr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현장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회원여부 : 사업장이 상공회의소 회원가입 되어 있으며, 회비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바코드 회원 불포함)